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 인도자
※ 예배기원	..... 인도자
※ 경배찬송	..... 21장(다 찬양하여라)..... 다 같이
※ 교독문	..... 15(시편 27편)..... 다 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 438장(내 영혼이 은총입어)..... 다 같이
예배기도	..... 1부 김애경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 찬양대
이달의찬양	..... “평화의 기도”.....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 다 같이
*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 이 땅위에 참된 평화와 정의를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전도서 9:7-10..... 천사라권사
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하나님이 주신 복의 뭍을 누리라 > 최세열목사
기도	.....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 410장(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 같이
봉헌	..... (새신자돌봄팀)..... 다 같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은이
※ 찬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 최세열목사
※ 축복송	.....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30분		시백기도회(월-토)	
신도회별 찬양대회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한마음기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마태복음강해)	
진행 : 김혜경권사(친교부장) 기도 : 김기수집사(청년부장)		본문 / 딤후4:9-22 말씀 / 최세열목사 “부탁과 안부” 주기도문 / 다같이		<b>금요기도회</b>	
* 신도회 및 교육부서				금요일 저녁 9시 소예배실 함심기도,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황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음주 기도	1부	차소라집사
	헌금위원	6월	김대봉 이영란 김종천 박현순	1부	말은이
		7월	김기희 신공님 허웅 김귀례	2부	신혜영권사
	식당봉사	금주 베드로회 다음주 마르다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이영란권사	
헌신찬양	금주 새신자돌봄팀	다음주	1 구역		

### 하나님이 주신 복의 뭍을 누리라 / 전도서 9:7-10

사람의 '생과 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1절).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희망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1. 하나님이 주신 복은 수고 하고 얻은 내 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싸워 정복해야만 했고, 계속해서 그 땅을 지켜내야만 자신들의 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땅 흘려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해하는 것은 내 능력대로 무한히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복의 뭍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 2.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무엇보다 4절을 말씀을 통해 살아있음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소중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 첫째, 음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7절).

즐겁게 음식을 먹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는 일이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 둘째, 주어진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8절).

이스라엘에서 흰 옷을 축제와 절기에 입는 옷입니다.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잔치 때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축제와 잔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삶의 순간 순간에 주어진 즐거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 셋째, 가정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십니다(9절).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행복한 시간,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을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기 못한다면 형편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하십니다.

##### 넷째, 일을 즐기라고 하십니다(10절).

네 손이 힘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노동을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이스라엘속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살후3:10)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살아있음은 복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뭍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감사하게 살아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강림후 세째 주일(6월 22일)

### 제 26 과 은사 중의 은사(고린도전서 13장 1-13절)

(함께 읽을 말씀 : 레위기 19장 17-18절, 요한복음 13장 31-35절)

#### 말씀묵상

1. 흔히 우리는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이 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성령의 은사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라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또 무엇일까요?

2. '사랑 장'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찬가'로 노래 부르는 이 장은 감미롭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 그 바탕에 가장 귀한 은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깔렸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기 쉽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확증이 있어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출한' 성령의 은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적을 일으키든가 예언을 하든가 방언을 하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두드러진 은사를 보여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특출한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시위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겨 분열이 일어났고,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와 대결하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고전 12:3). 믿음이야말로 은사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신앙고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같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각각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은사는 서로 '다른' 것일 뿐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차이'의 문제이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은사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말이지요. 은혜의 선물이란, 말 그대로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다만 겸손히 기쁨으로 찬미하게 할 뿐입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고전 12:22). 작은 은사라고 덜 귀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초부터 모든 은사에는 귀천도 경중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자,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로 바울은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참 은사요,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3. 사랑은 모든 은사를 참되게 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란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기도 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선행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지요. 그저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 사용할 때, 가장 귀한 은사가 됩니다. 사랑으로 참 은사를 사용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신도회별 찬양대회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령충만을 위한 작정밤 기도회가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이완수 김봉순 김귀래 김범진 서영자 신공님 최세열 조성순 정혜진 김상래 강경원 한국회 이현욱 지국남 김숙희 김연학 김장숙 함경숙 김기수 신혜영 허 웅 김순님 심복래 최승만 오복실 곽현석 박지영 김홍영 김인순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정혜진 김동현 김지환 양희일 최세열 조성순 우기남 한상호 차소라 한재현 한진현 김춘자 강경원 한국회 이종춘 심문자 이완수 김봉순 무 명 (일천번제)김동현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김귀래 김범진 심승기 함경숙 허 웅 김순님 심복래 신공님 김인순 안진영 안드레 노순영 김숙희 지대근 조은미 장영분 선우명환 사사회 마리아회
- 비전씨앗 : 배영인 황은상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심복래	4	14,000	15		7	강은순	이영선	김숙희	8	11,000	82	김홍영
2	정정희	김한수	이경희	4	22,000	30		8	김순님	오복실	김장숙	9	45,000	80	차소라
3	이춘호	함경숙	함경숙	2	15,000	200	이종봉	9	김인순	이영란	박기환	3	11,000	200	한미경
4	김기희	최경선	김춘자	3	16,000	30	주종일	10	장영분	노순영	노순영	4	17,000	75	김애경
5	이문순	원혜경	한은미	4	23,000		윤종원	계				44	189,000	812	
6	류종란	김애자	김애자	3	15,000	100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30	사무실

**제가 지금 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대기업 회장이 해변에서 바람 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자그마한 고기잡이배들이 있었습니다. 한 배를 들여다보니까 어망에 얼마 되지 않은 고기가 담겨져 있고 고기잡이 배 주인인 듯 보이는 사람이 늘어져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한참 고기가 많이 잡힐 시간인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장이 담담한 마음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한참 고기를 잡아야 할 시간에 여기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어부가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잡을 만큼 다 잡았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회장이 담담하다는 듯이 더 물었습니다. “아니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왜 더 잡지 않습니까?” 어부가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왜 더 잡아야 되는데요?”

회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고기를 더 잡아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엔진이 달린 배를 사고, 그러면 더 깊은 바다에 가서 큰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큰 고기를 잡아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이제는 낚시로 잡을 것이 아니라 큰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큰 그물을 사고, 그렇게 해서 더 큰 고기를 더 많이 잡게 되면 배를 한 척, 두 척 더 늘리고, 그러면 큰 선단을 만들어 원양어선을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처럼 이렇게 큰 기업을 거느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하죠!” “아니 그 다음에는 물론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는 거죠” 어부가 회장님에게 다 그치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감사기도의 놀라운 효능**

미국의 의사 존 자웨트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서는 어느 사람들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세 가지의 특이한 분비물이 나오더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첫번째 분비물은 연구자인 존 자웨트도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인데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결코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진시킨다는 연구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부단히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비물은 항독소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 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으며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흡수를 도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25 2014.6.22.

**6월 교회행사 안내**

1. 평신도참여예배 - 6월 15일 / 바울회
2. 신도회별찬양대회 - 6월 22일 찬양예배 /주관: 친교부 - 자유곡 1곡
3. 해든솔선교활동 - 6월 14일(토) 오전8시30분
4. 작정밤기도회 - 6월 30-7월 3일 - 매일 저녁 8시 / 종합교육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오니  
영광과 찬양을 돌리나이다  
평화의 주님,  
한반도의 두 동강 난 허리를 치유하여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소서.  
지난 60여 년 세월 살의에 가득한 눈으로  
서로 상처 내며 비방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이념과 종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생명과 평화, 정의는 외면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평화의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평화를 가장한 폭력을 깨닫는 지혜와,  
정의로 포장한 불의를 깨닫는 지혜와,  
생명으로 회칠한 죽음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지혜로운 증인이 되어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어린이가 함께 뛰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평화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영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 김영란 반주: 안진영**